

광운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
1교시 · 문제 1	3
1교시 · 문제 2	8
2교시 · 문제 1	13
2교시 · 문제 2	17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21
1교시 · 문제 1	21
1교시 · 문제 2	25
2교시 · 문제 1	29
2교시 · 문제 2	34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37
1교시 · 문제 1	37
1교시 · 문제 2	41
2교시 · 문제 1	44
2교시 · 문제 2	48

2026학년도 인문사회계열

1교시 · 문제 1

[문제 1] ㉠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으로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입장을 서술한 뒤, ㉢의 삶을 (마)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모진 소리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능굴에 정을 친다
찌어엉 세상에 금이 간다.

[나]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함[仁者愛人也]과 사람다움[仁者人也], 즉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이자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충서(忠恕)이다. 충(忠)은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금의 속임이나 꾸밈이 없이 ‘스스로 온 정성을 다함[盡己]’을 말한다. 서(恕)는 ‘자신을 미루어 상대에게 미친다[推己及人]’는 정신으로, 타인의 처지를 헤아려 공감할 때 온전히 발휘된다.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내면적으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여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禮)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하였으며, 인을 바탕으로 예를 실천하는 인간을 군자(君子)라 하였다.

하지만 공자가 강조한 예는 단순히 기존의 규범과 제도를 묵묵히 따르는 것만은 아니었다. 공자는 예가 시간이 지날수록 인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 형식화되는 것을 비판하며 예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자가 정치에 관해 질문하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곧 도덕적으로 성숙한 개인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직분과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정명론(正名論)이라 할 수 있다.

[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의 날을 쫓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러운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상하의 윤리가 결국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제나라의 재상 관중은 “사유(四維)*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에만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 나 뇌물을 국고에 들이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에 채운다. 나라에는 빛이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곤궁치 않으랴.

*비도(匪徒) :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무리

*사유(四維) :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인 예(禮)·의(義)·염(廉)·치(恥)

[라]

선굴자(蟬橘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穢德)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마을 안의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는데, 온 마을에서 그를 ㉠**엄 행수(行首)**라고 부른다. 선굴자가 막일에 종사하는 천한 엄 행수를 선생이라 높여 부르며 교분을 맺으려고 하자, 선굴자의 제자 자목(子牧)은 체면을 차리지 못하는 스승에게 실망하고 하직하려고 하였다. 이에 선굴자가 자목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가장 높은 등급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적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고 돌아와서는 흰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 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일컫는 것일세.”

[마]

성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곧 천리(天理, 하늘의 이치)라고 주장한다. 천리는 우주와 만물의 본체이며,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바로 이러한 천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천리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강조하며 인간의 도덕적 지향성을 강조하였으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실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원리의 세계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사유가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실학사상이 등장하였다.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성리학과 큰 차이가 있다. 이 실학의 진면목을 잘 보여 주는 사상가가 정약용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터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성리학과는 달리, 정약용은 선(善)을 행한 다음에 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에 대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의 경향성인 기호(嗜好)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인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했으므로, 인간의 주체적 의지와 자율성에 따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늘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인의예지와 같은 사덕(四德)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四端)을 실천하면서 사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곧 인간이 선을 기호하기 때문에 사단과 같은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갖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천을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도덕 이론을 세우고자 한 실학적 산물이었다.

■ 예시 답안

(가)의 ㉠은 내 모진 소리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고통으로 전이해 온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나)에서 인을 실천하는 방법 중 ‘서(恕)’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공감하고 배려함을 뜻한다. 자신의 성찰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은 “자신을 미루어 상대에게 미친다.”라는 ‘서’의 정신을 핵심적으로 나타낸다.

(나)의 ‘정명론(正名論)’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본인의 직분에 어울리게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다)의 글쓴이는 지금 임금은 훌륭하지만 신하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군신의 의리와 상하의 윤리가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 정명론을 근거로 글쓴이는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재물을 쌓아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신하들의 탐욕을 규탄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라)의 ㉡엄 행수는 똥거름을 쳐내는 일을 생계로 삼지만, 자신이 할 일을 충실히 하여 채소를 기르는 여러 곳에 도움을 주고 스스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인물이다. (마)의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실학자 정약용은 도덕성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善)을 실천한 다음에야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은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지키고 생계를 충실히 꾸림으로써 덕을 쌓아가는 엄 행수의 실천적 삶은 정약용이 주장한 실학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772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의 의미에 관해, (나)의 ‘서(恕)’ 개념을 참고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고통으로 전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면 최대 5점 - ‘서(恕)’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공감하고 배려함’이라는 뜻을 밝히면 최대 5점.(인仁, 충忠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과 ‘서(恕)’의 의미를 인용,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상대의 아픔(고통·상처 등), 서(恕), 공감(배려)	50
	② 자신의 직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명론(正名論)’이 (다) 글쓴이의 명분이 된다는 내용을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나)의 ㉡‘정명론’ 또는 ‘정명 사상’의 핵심 의미(‘직분에 걸맞게 행동’ 등)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 글쓴이의 명분인, ‘임금은 훌륭하지만 신하(또는 수령)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최대 5점 - 글쓴이의 입장으로, 정명론을 명분으로 삼아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신하(수령)들의 탐욕(또는 병폐)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정명론(정명 사상), 직분(역할·본분 등), 임금, 신하(수령)	
	③ ㉢엄 행수의 실천적인 삶을 (마)에 서술한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연결하여 설명한 경우 최대 15점 - 엄 행수의 실천적 삶의 태도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술하면 최대 5점 - (마)에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의 주요 의미(‘도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품을 실천한 다음에 형성’, ‘도덕성은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결과’ 등)가 들어가면 최대 10점 (실생활, 현실적인 학문이라는 등의 일반적인 실학의 의미만 서술되었을 경우, 부분 점수 5점 이하로만 부여) -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실천, 정약용, 도덕성, 후천적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운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1교시 · 문제 2

[문제 2] ㉠의 의미를 (가)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을 (나)와 (다)로 설명한 다음, ㉢을 (라)와 (마)의 핵심 내용으로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가 주는 짜릿함에 몰입한다. 어찌하여 느낌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는가?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 준다. 즉,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대개 작지 않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그 간극이 크면, 불편함과 불화의 정도가 커지기 쉽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 특히 그렇다.

물론 ㉡빠름이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이, 그것이 악덕인 것만도 아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다.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한다. 심지어 예술도 그런 것 같다. 비르투오소(virtuoso, 탁월한 기교의 연주자)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에 인생을 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묘기를 자랑하는 서커스에 지나지 않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 기계에 불과하다.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다.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맡겨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된다.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를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니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고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는 인류가 발전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1, 2차 산업 혁명 이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를 즐기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도 향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은 외로운 사람의 말벗이 되어 줄 수 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치병이나 희귀 질환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한편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국 일자리를 빼앗아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인공지능 낙관론자들은 1, 2차 산업 혁명의 예를 들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습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빨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므로, 1, 2차 산업 혁명 때와 달리 사라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에 부가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발전이 주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을 줄이고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제작 기간을 줄이고,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도 단축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단 2주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반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에 약 40만 제곱킬로미터가 생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약 네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그 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은 약 6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약 서른두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자연 못지않게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더 빨리,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들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다.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치를 분별하여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자는 유가에서 당시 사회 혼란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인위적인 덕목이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도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노자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자연에 따르는 삶의 태도를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인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고 싸우지 않는 덕을 지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도 이를 본받아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덕을 지닌 이상적 인간을 성인(聖人)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앞서기를 추구하고, 부나 권력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좇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가에서는 가치가 상대적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외물을 지나치게 좇으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친다고 보았다. 도가에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만 매달리지

않을 때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마]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습식법은 가공용 탱크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따라서 값싼 커피는 대부분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에 의해 가공되는 반면,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는 주로 습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수확한 체리는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을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과육을 벗겨 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 과정에서 생두에 남아 있던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4-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된다.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인 12.5퍼센트로 낮추기 위해 생두를 건조한다. 이때 8-10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에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 예시 답안

속도가 빠르기로 간주되고 빠름이 미덕과 능력이 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속의 조류에 휩쓸려 자신의 고유한 속도를 잊은 채 의무와 강요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달리고 있다.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속도의 파시즘 사회에서 속도의 경쟁과 강박은 우리 자신의 삶과 내면의 속도를 잃고 달리게 만든다.

(나)에서 과학 기술의 빠른 진보로 탄생한 인공지능은 일자리, 복지, 의료 등에서 인류의 삶과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나 1, 2차 산업혁명 때와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며, 선진국에 부가 편중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된다. (다)에서 속도 경쟁은 제작 기간을 줄여 의류를 더 빨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제품 판매로 의류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반면에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의류 직물의 처리는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며,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노동의 착취가 발생한다. 이처럼 빠름은 미덕과 악덕의 양면성을 보인다.

(라)에서 노자는 인위적인 세상의 조류가 아닌 자연의 흐름과 속도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마)에서 고급 원두는 건식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습식법을 통해 가공되며, 습식법으로 커피 원두를 얻으려면 커피 열매의 세척과 분류, 2차 분류, 발효, 세척, 건조를 포함한 전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이 상선약수의 덕으로 이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듯이, 복잡하고 긴 과정을 온전히 거쳐야 고급 원두가 탄생하듯이 지나친 경쟁에서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793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 사람들이 인위적인 속도에 몰입하는 현상의 의미를 (가)에서 빠름으로 정의되는 속도, 가속과 경쟁이라는 세상의 조류, 속도의 추구, 의무와 강박, 자기 속도의 실종 등을 포함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8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속도, 빠름, 가속, 경쟁 사회, 의무와 강박, 자기 속도 및 관련 단어	50
	② ㉡ ‘빠름이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이, 그것이 악덕인 것만도 아니다’를 (나)와 (다)의 내용을 사용하여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16점 - (나)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인공지능이 일자리, 복지, 의료 등에서 인류의 삶과 미래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1, 2차 산업혁명 때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존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자본과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에만 부가 편중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8점 - 그러나 인공지능 발전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만 서술할 경우 최대 4점 - (다)에서는 의류 업계의 속도 경쟁이 제작 기간을 줄여 의류를 더 빨리 유행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제품 판매로 의류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의류 직물의 처리는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키며,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노동의 착취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8점 - 그러나 의류 업체 간 속도 경쟁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만 서술할 경우 최대 4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인공지능, 일자리, 경제적 불평등, 의류, 유행 소비, 속도 경쟁, 환경 오염, 노동 착취 및 관련 단어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③ ㉔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가 의미하는 바를 (라)에서 노자의 도가 사상의 핵심 내용을, (마)에서 커피 원두 공정을 적절히 서술하고 (라)와 (마)를 근거로 지나친 경쟁에서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6점 - (라)에서 노자의 도가 사상에서 인위적인 세상의 조류가 아닌 자연의 흐름과 속도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이를 ㉔과 적절히 관련시켜 서술하면 최대 8점 - (마)에서 고급 원두는 건식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습식법을 통해 가공되며, 습식법으로 커피 원두를 얻으려면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㉔과 적절히 관련시켜 서술하면 최대 8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노자, 도가, 무위자연, 상선약수, 자연의 흐름, 커피 원두, 습식법, 공정 및 관련 단어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유의 사항>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1

[문제 1] ㉠의 의미를 (나)의 두 관점으로 대비시켜 서술하고, ㉡을 (라)를 활용하여 설명한 뒤, ㉢을 (다)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감정 인식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여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와 떨림 등으로 상대방의 근심을 감지한다. 페퍼의 정서적 기능은 이미 유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퍼는 감성 기술 고도화로 감정 로봇의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이다. 페퍼는 은행, 커피 전문점, 대형 쇼핑몰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한 미용실에도 채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로봇 ‘나오’는 58센티미터의 작은 키에 사람처럼 모든 관절이 움직이고, 사람 얼굴을 인식하며, 8개 언어를 읽고 말한다. 이 로봇은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언어 등의 과목을 가르친다. 목소리와 얼굴 인식 등이 가능해 학생들의 질문에 곧잘 대답한다. 감정 인식 로봇은 최근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이돌봄이 역할도 맡고 있다. 자신을 웃게 하고 대화도 나누는 유일한 존재인 로봇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미래 가치가 로봇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로봇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형태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회의적이고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 이들이 많지만, 로봇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로봇을 가족 같은 존재로 여긴다.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원의 한 연구위원은 “감성 로봇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줄여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로봇 사회가 가져올 충격을 극복할 사회 제도의 변혁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최근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이해하는 로봇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간과 닮은 로봇의 등장은 로봇 공학과 떼어 수 없는 분야가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권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런 고민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 갈 것이다.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인공 지능 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로봇 공학의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로봇의 진화란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런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노예나 가축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공학자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처럼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聖人) 같은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은 필요하지만 굳이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로봇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면, 아마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이나 집안의 반려동물과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권을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난제까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 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감정은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된 번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은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

여러분은 ‘낭만(浪漫)’의 뜻을 아시나요?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물결 랑(浪)’에 ‘흩어질 만(漫)’. 미묘하게 일렁이는 마음의 파동. 언어로는 쉬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만이 지닌 고유한 감정. 바로 낭만입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죠?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그의 마음 역시 매우 출렁였을 것입니다.

“바둑의 낭만을 지키는 대국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의 패배로 사람들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어찌 보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라 하더라도 단순한 계산기의 연산 속도를 이겨 내지는 못하듯, 바둑 하나만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은 마침내 인류를 이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첨단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일렁이는 마음의 파동, ‘낭만’이 아닐까요? 최소 2,5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는 바둑. 상대의 마음속 파동을 읽어 내고 그 생각의 결을 더듬는 행위. 대국에서 이긴다 해도, 혹은 진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 바둑의 세계에서, 오직 ‘이기는 것’만 입력되어 있을 인공지능의 승리는 글자 그대로 ‘승리’일 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승리의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인가요?

상대방과의 대국은 바둑판을 통해 소통하는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바둑판과 승패라는 공간적·경쟁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이기기 위해 진보된 연산 기술이 아니라, 바둑판 위에 일렁이는 마음의 파동을 즐기는 과정과 이를 공감하며 존중하는 인간의 진정성이 아닐까요?

[마]

21세기는 인간이 현생 인류를 일컫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세기가 될까?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는 “그렇다.”라고 단언한다. 그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지나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2,100년 이전에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라리는 인공지능에 밀려 무용지물로 전락한 인간들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와 결합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인류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

계를 뛰어넘은 신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차지한 이상 인간은 기계와 함께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호모 사이보그’가 된다 해도 인간이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라리는 “지금부터 **⑤마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신체·인지 능력이 초인간적으로 되더라도 마음을 유지한다면 기계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처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몸과 뇌 연구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는 것처럼 마음의 연구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끝까지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 예시 답안

(나)에서 인간과 닮은 로봇을 어떤 가족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드러난다. 먼저,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의식을 지니거나 도덕성을 갖춘 성인(聖人) 같은 로봇도 만들 수 있다는 로봇 공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로봇을 인공 노예나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 여기므로, 바로 인간 가족과 다름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한편, 인간과 닮은 로봇을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두뇌와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로봇 공학자들이 있다. 정서적인 교감만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의 로봇은 반려동물처럼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의 ㉠에 대해 (라)에서는 ‘낭만’을 강조한다. 예컨대 바둑은 상대의 마음속 파동을 읽어 내거나, 패배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세계이다. 이 바둑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은 승부에서 이기더라도,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감정인 낭만은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은 바둑에서 요구되는 소통의 관계와 공감, 즐거움의 과정, 존중의 진정성 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마)에서 인간이 기계와 결합해 생물학적 한계를 넘은 존재가 되더라도,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 연구 강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에 따르면,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은 감정이고, 역사와 문명은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하였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유연성과 창의성은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고, 인간의 약점은 ㉡에서 강조한 ‘마음’처럼 인간다움을 간직하게 한다.(787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을 전제하고, (나)에서 ‘인간과 다름없는 가족’, ‘인간은 아니지만 반려동물과 같은 가족’이라는 두 관점으로 대비시켜 서술했을 경우 최대 20점 -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의식을 지니거나 도덕성을 갖춘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로봇은 인간 가족과 다름없다는 관점을 포함하면 최대 10점 - 인간과 다른 존재의 지능적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이런 로봇을 반려동물과 같은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포함하면 최대 10점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가족, 인간의 지능과 의식, 도덕성, 성인, 다른 회로 구조, 정서, 교감, 반려동물	50
	②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라)에서 강조한 낭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자, (라)의 핵심어인 ‘낭만’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최대 5점 - 바둑을 예시로 들어 낭만이 결여된 인공지능의 한계까지 드러내면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낭만, 마음의 파동, 바둑, 소통, 공감, 과정, 존중	
	③ ㉡의 당위성이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임을 밝히고, (다) 결핍과 고통에서 오는 감정 및 유연성과 창의성 등의 내용으로 인간만이 가진 속성을 서술한 경우 최대 15점 - ‘㉡마음 연구 강화의 이유,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방안(인간다움 관련 내용) → (다)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인 감정’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 그로 인한 동력, 유연성과 창의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 최대 5점 - (마) 마음과 (다) 인간의 약점(감정, 부정확한 인식, 비합리적 행동 등)이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속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감정, 결핍과 고통, 유연성과 창의성, 인간의 약점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2

[문제 2] 정보 격차가 ㉠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언론이 ㉡에 미치는 영향을 (다)를 활용하여 제시한 후, ㉢을 낳는 원인을 (라)와 (마)의 관점 차이를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재산, 권력, 명예 등과 같은 희소한 가치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희소한 가치들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회나 조건 등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결국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나 접근 기회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이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자원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자본의 불균등한 분배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 권력의 획득과 행사 차이로 나타나는 ㉡**정치적 불평등**, 명예·교육 수준·문화 자본과 같은 사회·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어느 것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은 능력이 개인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는 정보 사회로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 달성에 유리하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은 빈부 격차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능력에 따라 정보를 배분하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식 습득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노령층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배분받는다. 이처럼 정보의 불평등한 배분이 집단 간 차이의 형태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정보 격차’라고 한다. 정보 격차의 원인은 정보 기기 보급률의 차이,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 고급 정보에의 접근성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우리의 경제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며,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선택에 따른 이득, 즉 ‘편익’도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은 그 선택으로 포기한 기회의 가치며,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즉, 기회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것을,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개인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한 가지라면 그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대안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한 다음,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개인과 기업의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분석 과정에서 동원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 그리고 이를 분석하는 데 투입하는 노력과 자원은 개인마다 다르다.

[다]

대의 민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다. 시민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로 직접 출마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선거 외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주민 투표제, 지역 행정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감사 청구제가 있다. 이 밖에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개인 의견 보내기, 행정 기관에 건의하기, 시민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정치적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선을 목적으로 할 때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한편, 사회 구성원 각자의 정치 참여 행위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언론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하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수많은 문제 중 언론이 선택하여 보도하는 내용은 시민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문제를 우선 해결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정부나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쟁점의 특정 부분과 방식을 강조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수용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라]

인간은 무리를 지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처음에 몸짓이나 표정 등 신체를 활용하여 소통했던 인간은 더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찾다가 말과 글을 만들어 냈다. 이때부터 인간은 비로소 기록을 남기며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고, 이는 제3의 소통 수단인 미디어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디어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고 그 특성도 다양해졌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소통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내용과 신문에서 유통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이용하는 미디어에 따라 각자가 습득하는 정보도 달라진다.

미디어는 그 특성에 따라 전달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일부 계층이 독점하였던 지식과 정보를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인쇄 미디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손쉽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은 영상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가 주도하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를 거쳐 디지털 미디어로 발달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마]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공동으로 체험하고 협력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다. 따라서 미디어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갖춰야 할 핵심적인 삶의 기술이 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고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접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이 수용하고 활용한 정보는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가 전달한 내용 중 이용자가 선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용한 정보의 품질과 활용 방법에 대한 책임은 정보 공급자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개인도 나눠서 져야 한다. 즉 정보 소비자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와 진실성을 판단해서 수용하고, 미디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소비 활동은 곧 새로운 정보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디어 이용자는 정보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된다. 미디어 이용자 개인은 전달받은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합하기도 하므로 이에 필요한 능력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신

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달할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서 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능력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다. 더 나아가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쟁점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다.

■ 예시 답안

경제적 손익에 관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려면 편익과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산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선택 결과가 더 나아지므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합리적 선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권력 획득과 행사를 위해 선거 등 다양한 경로로 정치에 참여한다. 어떤 활동을 언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 높은 정보를 확보하면 정보가 없거나 질 낮은 정보에 의존할 때보다 더 나은 정치 참여 행동을 선택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관련 정보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 전달되므로 언론이 유통하는 정보의 양과 편향성은 정치 경쟁에서 특정 집단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별로 이용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정보 불평등은 정보 노출 단계와 수용·해석 단계에 걸쳐 발생한다. (라)는 미디어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 불평등을 설명한다. 미디어별로 제공 정보가 다르고 사람마다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가 다르므로 결국 접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수에 따라 개인이 얻는 정보가 달라진다. (마)는 이용자의 수용·해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에 관해 설명한다. 개인은 노출된 정보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같은 정보에 노출된 개인 간에도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 정보 불평등이 발생한다. (778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	①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점 - 합리적 선택을 위해 편익과 (기회)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비용-편익 계산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정보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정보 격차와 불평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각각 최대 5점 감점 - Key Words: 합리적 선택, 편익, (기회) 비용, 정보 격차, 경제적 불평등
	②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점 - 개인이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정치 관련 정보가 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정치적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고 서술하면 최대 5점 (정보의 질은 편향성, 공부정성, 정보 내용, 혹은 정보 구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정보-언론-불평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최대 5점 감점 - Key Words: 정치적 불평등, 언론, 정보의 수와 질, 정치 참여 또는 옳은 결정
	③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20점 - 정보 유통의 과정을 2단계(노출-수용·해석 혹은 이에 준하는 구분)로 구분하면 최대 5점 -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중심과 소비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 최대 5점 - 정보 유통의 두 단계 혹은 생산과 소비 과정 두 영역에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최대 5점 - 미디어에 따른 정보 차이와 이용자 (리터러시)에 따라 수용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의 차이를 서술하면 최대 5점 - 정보 유통 단계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최대 5점 감점 - Key Words: 정보 불평등, 정보 노출, 정보 수용·해석, 미디어 리터러시
	<유의 사항>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500~599자는 10점 감점,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025학년도 인문사회계열

1교시 · 문제 1

[문제 1] (나)를 참고하여 ㉠을 서술하고, ㉡으로 (라)의 두 입장을 설명한 뒤, (마)의 관점을 (다)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동물인가 아니면 동물을 기르는 인간인가?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것을 보고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위의 세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와 다를 수 있고, 사람에게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포획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나]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 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고 과연 다람쥐도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

어머니는 다람쥐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목은 밥도 구해다 주었다. 열매처럼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사실 지난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 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다람쥐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 있었다.

[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세상에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다. 곧 동물이나 식물, 무생물 등 인간이 아닌 종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인간 중심의 ‘종 차별주의’나,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로 분류하는 ‘종 우월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확장한 ㉔개체론적 관점으로는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 동물 중심주의는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적 권리와 고려 대상을 동물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공리주의자 싱어는 ‘종 차별주의’를 비판하면서,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레건은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이라는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畏敬)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명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 가운데에서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고, 생존·성장·발전·번식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 존재이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동물·생명 중심주의를 개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생태 중심주의이다. 이 관점은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한다.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해 그 속에 토양·물·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하였고, 네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전체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큰 자아실현’이다.

[라]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蠃]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蠃]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절 : 팔다리의 뼈마디.

[마]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짚레처럼 살아라 한다
쭉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사위어지는 :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는.

■ 예시 답안

동물 복지의 기준은 인간이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나)에서 다람쥐를 보살핀 어머니는 인간의 관점에서 각종 먹이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는 다람쥐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을 망각하게 하였고, 다람쥐가 부엉이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물의 요구를 인간의 관점에서 짐작하여 야성을 유지해야 할 다람쥐나 동물의 처지를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개체론적 관점으로는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있다. (라)의 ‘나그네’는 동물의 고통을 이해하므로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크기에 따라 생물의 위계를 구분하여 ‘중 우월주의’적 입장을 일부 드러내었다. ‘나’는 피와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은 똑같이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관점을 가졌다. 생물의 위계를 구분한 ‘나그네’에 비해, ‘나’는 크고 작은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므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신성하다는 생명 중심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지닌다. 다만 ‘나그네’와 ‘나’는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만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개체론적 관점을 벗어나지 않았다.

(마)에서는 자연을 동경하고 조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작자는 인간과 식물을 비롯하여 무생물인 산과 그믐달을 소재로 삼아 순리에 따르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곧,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하고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이해한 ‘큰 자아실현’으로서, 생태 중심주의에 입각한 전체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789자)

■ 채점 기준

- ①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관해,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동물 복지에서 동물의 관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5점
 - 동물의 요구나 관점을 어머니와 다람쥐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 최대 5점
 -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나 인간의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동물 복지, 동물의 관점, 인간의 관점, 어머니, 다람쥐, 야생, 생존, 본능
- ② ㉡개체론적 관점(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에 관한 내용을 (다)에서 찾아 (라)의 ‘나그네’와 ‘나’의 입장에 적절히 반영해 서술하면 최대 20점
 - (라)의 ‘나그네’와 (다)의 동물 중심주의 관점을 연결해 서술하면 최대 7점
 - (라)의 ‘나’를 (다)의 생명 중심주의 관점으로 연결해 서술하면 최대 7점
 - ‘나그네’와 관련하여 중 우월주의나 동물의 위계를 언급하고(3점), ‘나그네’와 ‘나’가 가진 개체론적 관점의 공통점을 서술했을(3점) 경우 최대 6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중 우월, 위계, 개체론적, 생명체 존중 관련 단어
- ③ (마)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다)의 생태 중심주의나 전체론적 관점과 연결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10점
 - 자연 친화적, 혹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태도를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 작품에서 구체적인 무생물 소재(산, 그믐달 등)를 예로 들어, 생태 중심주의나 전체론적 관점으로 설명한 경우 최대 5점
 -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자연 관련 단어, 무생물, 생태 중심주의, 전체론적, 대지, 큰 자아실현
-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배점: 50

1교시 · 문제 2

[문제 2] ㉠의 문제 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나)에서 찾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방식의 문제점을 (다), (라), (마)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 반군들은 순천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다. 20일에는 남로당 조직에 연결되어 있던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빨치산인 염상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한다. 그리고 그날 학병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김범우를 찾아와 피신을 권한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지주인 아버지 김사용은 인민재판을 받았다.

“작은서방님, 작은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께요.”

문 서방이 사립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 서방!”

“금께 머시냐, 이, 이,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전신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허탈에 빠져 비칠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금께, 어르신 차례가 되셨는데, 위메 참말로 환장하졌등거. 어르신네는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꼴꼴하게 스셨는데, 누가 벌떡 일어남스로 소리 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준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 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고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준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껏정 소식이 없다. 못헐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소)작인들한테 질로 후허게 헨 사람이다. 고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게 김사용은 숙청에서 빠져 헨다, 고 허드랑께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헨다고 발표허고는 또 ㉠모인 사람들한테 위떻게 헐랑가 문드만요. 위메, 고때 사람 미치겼등거. 군디 여그저그서 웁소, 웁소, 허는 소리가 터짐스로 박수를 안 치것소. 위메 나는 이때다 싶어 목구녕이 찢어져라 웁소, 웁소, 소리 질르고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그라 박수를 쳤구만요. 그러서 어르신이 화를 면허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데…. 지가 쫓아가 어르신 을 부축헐시로 올매나 죄시럽고 눈물이 나는지…”

[나]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대립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가치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곧 정치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고대부터 한 사람이 지배하는 독재나 전제 정치,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과두 정치,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귀족 정치,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시민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이 정부에 정책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결정 주체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설득과 토론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다수결 방식을 택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 다수결이 유일한 민주주의 의사 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하며, 지혜의 미덕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맡으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즉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시민권을 지닌 아테네인 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플라톤 이래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가 평등과 자유에 대해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보통 사람은 정치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가 많고, 설령 갖추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꺼리므로 정치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정만 보면 합리적일지라도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히틀러의 통치를 들 수 있다. 히틀러는 민주적 선거에서 독일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총통이 되었지만,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대인을 학살했다. 다수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판단한 사람이 실상은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다.

[라]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는 사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로 결정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라고도 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명목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다수에 의한 통치가 실제로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결코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독재는 다수의 유권자가 소수의 희생으로 자신의 목표를 독점적으로 추구하는 다수결의 본질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제임스 매디슨도 51퍼센트가 강요하는 다수의 독재는 미국인이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며 저항했던 왕정 독재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유론』을 쓴 미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가 폭군이나 독재자에 필적할 만큼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화 「덩케르크」는 어떻게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독일군에 패배한 연합군은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탈출하려 한다. 덩케르크 항구에서 연합군 중 한 무리가 버려진 선박에 올라타 영국으로 탈출하려 하지만, 출발하려는 배에 구멍이 나 물이 들어온다. 그러자 배 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군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프랑스 군인 깃스를 쫓아내자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에 영국 군인 토미는 프랑스 군인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무시된다.

[마]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았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평등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서 보면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제한적이었다. 시민 혁명 이후의 근대 민주주의하에서도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 시민의 의사만 반영되었다.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것은 아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소수인 백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때 소수인 백인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면 실제로는 소

수인 권력 집단이 다수 구성원을 다수결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따라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정치적 참여의 의무를 진다. 모든 선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시민 중 일부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회피한다면 실제로는 소수가 다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러한 소수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

■ 예시 답안

㉠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민재판의 문제 해결 방식은 (나)의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다수결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도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다), (라), (마)는 다수결 방식이 가진 세 가지 문제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수결은 시민 각자에게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정만 보면 합리적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다수결이라는 합리적 과정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영화 ‘덩케르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집단 간 갈등이 생길 때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 처지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면 다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절대적 다수가 항상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고대 그리스에서와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일부 집단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배제를 통해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를 회피하게 될 때도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참정권의 배제 혹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다수와 소수의 지위가 역전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 (762자)

■ 채점 기준

- ①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인민재판은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는 내용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원칙을 설명하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집단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임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은 절대다수가 아니라 참여자 중 다수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결정 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추가 점수 최대 **3점**
 - 다수결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 최대 **10점 감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인민재판, 정치(과정),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갈등, 다수결
- ②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수결이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의 합리성을 과정과 결과로 나눠서 서술하면 최대 **5점**. 예를 들어 과정은 합리적이지만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서술.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도입 부분 참조
 - **Key Words:** 과정, 결과, 결과의 합리성 또는 옳은 결정
- ③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이익(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의 독재 혹은 다수의 횡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서술하면 추가 점수 최대 **3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중간 부분 참조
 - **Key Words:** 다수 이익 추구, 소수 이익(권익) 침해, 다수의 독재(또는 횡포)
- ④ 아래 키워드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점**
 -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일부 집단이 배제되면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최대 **5점**
 - 다수의 침묵 혹은 다수의 (참여)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수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서술하면 추가 점수 최대 **5점**
 - 다수와 소수의 지위 역전이 실제 다수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참조
 - **Key Words:** 다수와 소수의 지위, (참정권) 배제, 다수의 침묵 또는 참여 회피, (실제) 다수의 피해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10점 감점, 500~599자는 20점 감점, 500자 미만은 3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1

[문제 1] ㉠의 현상을 (다)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의 의미를 (라)의 두 관점으로 설명한 다음, (나)와 (마)를 토대로 ㉢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은 주로 해외 구직 활동이나 국제결혼 등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거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종교를 가진 이웃이 늘어나고 있다.

한 사회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먼저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하고자 하는 동화주의가 있다.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이 다양한 문화를 섞어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자격으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다문화주의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맛을 내듯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문화 다원주의가 있다. 문화 다원주의는 ‘국수 대접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문화 사회가 갖는 문화 다양성은 해당 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문화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문화 융합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한다. 인류의 문화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한 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는 집단 간의 갈등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의 차이와 ㉠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난다. 언어와 가치관, 종교 등 문화의 차이로 인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집단 간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차별은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열등한 집단으로 여길 때 나타난다. 문화적 소수자들이 학교, 직장,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다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삶의 지표를 나와 내 단체의 이익 위주로 편성하고, 이익과 손해를 달리하는 타인이나 타 집단과는 ‘절대 타협 불가’라는 독불장군식 사고에 점점 몰입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소수는 승리를 만끽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다수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우리 삶의 공동체를 향유하기 위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공생하는지 보자. 서로 더 차지하려고 가지들끼리 무질서하게 얹히거나 다투지 않는다. 가지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햇볕을 최대한 받기 위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숲에는 크고 작은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들, 각종 야생 동물과 미생물들이 흙과 바위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단위 공동체인 조화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진다. 동시대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성원인 우리는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경쟁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만을 삶의 도구로 삼을 때 사회는 쉬이 피로해지고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며, 사회의 안정적 생태계는 무너지고 만다. 『탈무드』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

사회 집단은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집단은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우리 집단’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외집단은 개인이 소속감을 갖지 않는 집단으로, 이질감과 적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어 ‘타인 집단’이라고도 한다. 개인은 내집단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사회 생활과 관련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학습한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반 대항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반은 내집단이 되지만 다른 반은 외집단이 된다. 그렇지만 학교 대항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우리 학교가 내집단이 되어 다른 반 학생들도 내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내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성은 내집단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강한 내집단 의식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내집단 편애 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심리학자 세리프는 한 연구에서 10살 내외의 소년 2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캠프에 참가시켰다. 연구자는 그들을 5일 동안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모른 채 생활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은 이름과 상징, 규칙을 만들고 구성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두 집단에게 상대방 집단의 존재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두 집단에게 깃발 뺏기 놀이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자 집단 간에 비난과 증오를 동원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집단이 함께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지만 두 집단 간의 적개심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두 집단이 자주 마주치게 될수록 서로를 더욱 혐오하게 되었다.

[라]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누구나 독립된 자아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근대 시민 혁명을 전후로 등장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소유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같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 사익 추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개인의 권리와 사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의 문제를 지닌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관점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의하면, 공동체는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므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려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려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인도의 명사가이자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 관념에도 사로 잡히지 말고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 예시 답안

(다)에서 소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깃발 뺏기 놀이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자 두 집단 간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난과 혐오를 동반한 싸움이 일어났다. 이같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자리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은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과 상대 집단인 ‘외집단’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 의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선택과 권리, 사익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책무를 다하고 공익과 공동선을 실현할 때 공동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앞세워 혼자 가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도모한다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나)에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 집단과 타협하지 않는 경쟁만을 삶의 도구로 삼을 때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구조적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 (마)에서 우리가 대상을 우리의 인식 속에 굳어진 고정관념으로 판단한다면 그 대상의 새롭고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나)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외집단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마)에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외집단을 받아들일 때 내집단 편애 현상이 극복될 수 있다.(798자)

■ 채점 기준

- ① ㉠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놓고 경쟁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다)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에 따른 집단 정체성과 적대감, 그리고 이를 다룬 심리학 연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에서 소년 캠프에서의 경쟁 상황에서 깃발 뺏기 놀이로 경쟁을 유도했을 때 두 집단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희소가치를 놓고 벌이는 집단 간의 갈등이 ‘내집단’의 공동체 의식과 ‘외집단’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 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다문화 사회, 갈등, 내집단, 외집단, 소년 캠프 및 관련 단어
 - ②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의 의미를 (라)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대비시켜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10점
 - (라)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 사익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책무를 다하고 공익과 공동선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을 ㉠과 연관지어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동선 및 관련 단어
 - ③ (다)에서 제시한 ㉢ 내집단 편애 현상에 대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나)에서 주장하는 경쟁과 협력의 조화와 (마)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과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법정 스님의 글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비판했을 경우 최대 20점
 - (나)에서 내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경쟁만을 도구로 삼을 때 우리 사회가 위협을 받는다는 점과 경쟁과 협력을 통해 외집단과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할 것을 통해 ㉢의 극복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마)에서 대상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때 ㉢ 내집단 편애 현상이 극복됨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내집단 편애, 협력, 조화, 고정관념, 열린 마음 및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2

[문제 2] ㉠을 (가)와 (다)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을 (라)의 시각에서 평가한 뒤, (마)의 관점에서 ㉠과 ㉡을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바뀌어 결혼 및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출산율 저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한다. 이는 국가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전체 인구 가운데 부양 능력을 갖춘 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양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생산 효율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에 적신호를 보내는 현상으로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 환경 또한 개선되었다. 그와 더불어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예상된다.

[나]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불러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일과 가정일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또한 필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기초 연금과 같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고령자의 건강 관리와 치료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원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모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의 작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에 따라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인 공동체나 사회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복의 기준을 잘 살피고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신이 소중

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행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각 개인은 행복을 위한 자아실현에 맞는 일이라면 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

과거에 노인은 60대부터 지팡이를 사용할 정도로 노쇠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겨졌다. 또한 노인들의 문화는 경로당에 모여 단순한 놀이로 소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실버 세대와 달리 ‘뉴실버 세대’의 노인은 더 이상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손자를 돌보며 집 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는다. 그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스포츠·여행 등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꽤나 다르다. 평생을 일만 하고 은퇴한 후에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저임금으로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많은 노인들이 직면해 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해야만 하는 노인들이 많다.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노인들이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의 재원은 일하는 젊은층의 부담으로 작용해 세대 갈등이 일어난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 젊은층은 출산을 더욱 꺼리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마]

사람은 누구나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 자원을 얻어 경제 활동을 하고, 그 경제 활동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를 다시 자연으로 배출한다. 1996년, 캐나다의 경제학자 마티스 바커나겔과 윌리엄 리스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에 남기는 영향들을 발자국에 빗대어 ‘생태 발자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생태 발자국은 한정된 인구 또는 경제 단위가 자연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생태 발자국을 계산하려면 먼저 대상 지역에 사는 평균적인 한 사람의 소비 생활을 음식, 주거, 교통, 소비재,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공간, 즉 음식을 생산하고, 쓰레기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도로나 건물, 그리고 다른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논밭과 목초지, 숲 등 모든 공간의 면적을 더한 값이 생태 발자국이 된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헥타르다. 이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 기준점을 넘기 시작했고, 『2012 살아 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는 4.6헥타르에 이르러 149개 나라 가운데 스물아홉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계의 생태 발자국 평균 수치인 2.7헥타르보다 1.7배 정도가 높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수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원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이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지구 온난화 문제까지 발생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정된 지구의 자원으로 지금처럼 80억 명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다수의 인간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로 식량 생산량도 현저히 줄어들고 환경도 파괴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지수처럼 세계 모든 사람이 산다면 지구가 3개나 필요하다. 만약 지구의 관점에서 지난 300년을 돌아본다면, 50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매우 짧은 시기가 될 것이다.

■ 예시 답안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출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가령 개인의 사회적 지위 확대에 자아실현의 가치를 둔다면 결혼과 출산을 그 아래에 둘 수 있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갈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게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각종 복지 제도를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은퇴한 후에도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긍정하기는 어렵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경제적 부담을 젊은층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한정된 인구 또는 경제 단위가 자연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지수처럼 세계 모든 사람이 산다면 지구가 3개나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연명 치료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에 기대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764자)

■ 채점 기준

- ① ㉠을 (가)와 연결해 원인을 서술하고 (다)와 연결해 출산율 증가의 어려움을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을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이유를 (가)에서 찾아 적절히 서술해야 한다. 국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7점
 - ㉠을 국가적 관점과 대비되는 개인의 관점에서, 특히 행복 추구권과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8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국가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부양 부담 증가, 국가 경쟁력 약화, 행복 추구권, 자아실현, 개인의 선택 기타 관련 단어
- ② ㉡의 내용을 적절히 요약한 뒤, (라)의 비판적 시각을 찾아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10점
 - (나)에서 고령화 대응책으로 고령자가 일할 수 있게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각종 복지 제도를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면 최대 5점
 - (라)에서 은퇴 후에도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긍정하기 어렵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고령 친화 사업, 일자리, 복지 제도, 은퇴 후 노동, 저임금, 아픈 몸, 젊은층, 경제적 부담, 세대 갈등, 저출산, 악순환
- ③ (마)의 생태 발자국 개념으로 ㉢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최대 15점
 - 생태 발자국 개념과 그것의 심각성을 잘 정리한 경우 최대 7점
 -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의료 기술에 기대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이 지구환경 차원에서 문제라고 잘 설명한 경우 최대 8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생태 발자국, 면적 증가, 인위적 출산율 증가, 평균 수명 증가 등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울 경우 최대 10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024학년도 인문사회계열

1교시 · 문제 1

[문제 1] ㉠의 원인을 (나)를 참고해 서술하고, (나)와 대비되는 (다), (라)의 세계관을 설명한 뒤, 이와 가장 가까운 ㉡을 (마)에서 하나 골라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 혁명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과학에 바탕을 둔 공업이 발달하면서 원료 자원이 풍부한 곳에 도시가 발전하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나타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생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도시의 지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홍수가 발생하기 쉽고, 냉난방 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인공 열 때문에 도심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난다.

시야를 더 넓히면,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 **환경 문제**도 결국 산업화와 도시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다. 지구 온난화는 동식물의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어 생물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이는 식량 부족과 질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상 이변을 빈번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이제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획일적인 발전만 추구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는 자정하는 기능을 지니기 힘들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만큼 자연은 파괴되었다. 자연이 파괴되는 속도와 비례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산소 생산량은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 환경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다. 게다가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은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와 같다. 과연 이 ㉡ **폭주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있는가? 호모 사피엔스의 운명은 여기에 달렸다.

[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양적 사고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것은 구약 성서의 첫머리에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이에 인간은 신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은 천지의 주체가 되었고, 자연은 인간이 명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것이다. 주체인 인간은 신의 의지에 맞게 객체이자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인간이나 자연은 똑같이 신이 창조하였지만,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 밖에는 그 세계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신이 존재하고, 세계 안에 담긴 자연은 인간이 철저히 이용할 대상이거나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자연도 신이 창조한 것이기에 자연을 통해 신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은 인간이 파악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역할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다]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혼노라

보리밥 뜻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물 7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닛다 혼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 하암 : 향암(鄉闇).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 * 만승 : 만 대의 병거(兵車)라는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 * 소부 허유 : 고대 중국의 인물들로,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며 삶.
- * 낙뎡더라 : 영리하더라. 약았더라.
- * 임천한흥 :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

[라]

松間細路(송간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솔숲 오솔길에 진달래 부여잡고)
峯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 있네(수많은 집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煙霞日輝(연하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떨는 듯(연하일휘는 비단을 펼친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도다.)
功名(공명)도 날 꺼리고 富貴(부귀)도 날 꺼리니(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簞瓢陋巷(단표누향)에 핫튼 혜음 아니 혼네(단표누향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흔돌 었지헝리(아무튼, 한평생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 연하일휘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공명 :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 * 청풍명월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 * 단표누향 : 좁고 지저분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마]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호흡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공장의 보일러를 돌릴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나온다. 공장이 많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증가하고, 지구는 온실처럼 더워지고 있다. 그래서 남극의 빙산이 녹는 지구 온실 효과가 생겨난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광합성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광합성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비롯된다. 핵융합 반응이 태양을 모방하는 것이라면, 인공 광합성은 자연 광합성을 모방하는 것이다. 인공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태양 전지 장치이다. 지붕 위나 햇볕이 강한 사막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산소와 수소로 변환시킨 뒤,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 전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두 번째와 같지만, 그것에서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에 저장한 뒤 이를 사용해 메탄올과 같은 기초 화학 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반응이 자연 광합성과 가장 유사하다.

인공 광합성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 현상인 광합성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식물은 나름의 생존 이유가 있다. 유전 공학을 이용해 그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물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 인공적으로 광합성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자연 광합성을 모방한 인공 광합성은 인간이 도전할 만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이자, 지구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예시 답안

환경 문제의 단기적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지만, 궁극적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원형은 「창세기」에 잘 드러난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신은 인간만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의 주체가 되고 자연은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것인데, 주체인 인간이 객체이자 대상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했기에 오늘날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양적 사고와 대비되는 동양적 사고는 (다)와 (라)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선도 시조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나,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라는 표현을 보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라)에서도 속세의 삶과 대비되는 자연 속의 이상적 삶을 그리면서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라고 한다. 두 작품에서 자연은 속세의 번잡함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시적 화자는 물아일체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든 환경 문제를 자연 친화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공 광합성을 들 수 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인공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광촉매로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그것에서 발생한 전자를 고에너지 물질에 저장한 뒤, 이를 사용해 기초 화학 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인공 광합성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 친화적이다.(779자)

■ 채점 기준

- ① ㉠의 환경 문제의 원인을 (나)와 연결해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한 단락 안에 환경 문제의 원인을 서구적 사고의 원형에서 찾고, 그것이 창세기에 있으며, 창세기의 내용이 주체인 인간의 객체인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창세기, 신의 형상, 인간-주체, 자연-객체/대상, 정복/지배 기타 관련 단어
- ② (나)와 대비되는 세계관을 (다), (라)에서 구체적인 구절을 찾아 적절히 해석해 설명하면 최대 **20점**
 - (다)에서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라는 구체적 표현을 찾아 자연 친화적 태도를 설명하면 최대 **7점**
 - (라)에서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라는 구체적 표현을 찾아 자연 친화를 서술하면 최대 **7점**
 - (나)와 대비되는 (다)와 (라)의 공통된 특징으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의 이상적 삶을 지향하면서 물아일체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 **6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임천한흥, 청풍명월, 자연 친화, 물아일체 및 관련 단어
- ③ 자연 친화적인 해법을 (마)와 연결해 인공 광합성으로 설명할 경우 최대 **15점**
 - 해법으로 인공 광합성을 언급한 경우 최대 **5점**
 - 인공 광합성이 무엇이고 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인지 잘 설명한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자연 친화적, 태양 에너지, 인공 광합성 등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부드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1교시 · 문제 2

[문제 2] ㉠의 원인을 (나)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의 이유를 (가)와 (라)를 활용하여 기술한 뒤, ㉢을 (다)의 정보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려면 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음성이 필요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 혹은 경로를 매체(미디어)라고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매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첫째는 ‘시·공간적 제약의 극복’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같은 시간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정보나 지식, 생각이나 정서 등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변화는 전달되는 내용을 더 먼 곳으로 더 오랜 시간의 간격을 넘어 전달하므로 매체의 영향력을 높인다. 둘째는 ‘이용의 편이성 향상’으로, 이용을 위한 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하게 더 자주 매체를 이용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 매체인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낮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나눌 수 있고, 받은 정보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서 때로는 수용자로서 때로는 생산자로서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이 정보와 콘텐츠를 더 빨리 생산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접하는 정보와 콘텐츠의 양은 크게 늘었다. 또한 콘텐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품질 수준의 폭도 넓어졌다. 좋은 콘텐츠도 늘고 나쁜 콘텐츠도 늘어난 것이다.

나쁜 콘텐츠 중에서 ㉠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란 기사 형태를 지니지만 조작된 내용 또는 허위 사실로 이루어져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각종 SNS(누리 소통망 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문제를 낳는다.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가 거짓이라면 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지식은 없다. 또한 이런 정보를 근거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그 판단은 잘못될 경우가 많다.

[나]

흔히 대중매체라고 불리는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대규모의 조직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콘텐츠를 생산한다. 기자와 방송 피디(PD)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보 탐색과 수집 방법, 기사 작성법, 영상 제작법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터넷, SNS와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처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매체에서는 별도의 교육 이수나 자격증이 필요치 않으므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콘텐츠의 수집·전달 속도가 빨라 이용자들은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매체 환경은 질 낮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쉽게 한다. 질 낮은 콘텐츠는 다른 사람의 정보나 작품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한 것, 근거 없는 비방이나 욕설을 포함한 것, 허위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이다. 질 낮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은 다양한 피해를 낳는데 타인의 권리 침해, 감정 훼손, 합리적 판단 방해가 대표적이다.

[다]

정치는 사회의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세워 개인과 집단,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과거에 정치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일방적 과정이었으며, 시민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와 방법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고, 시민은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참여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 갈등과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목적의 달성 정도가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직자 선거와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지만, 이는 특정한 시기에만 가능하다. 일상적으로 개인은 여론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개인이 여론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경로는 언론이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포함된 인터뷰, 시민 동정,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독자의 기고와 의견란 등을 통해 개인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언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 혹은 의견을 지녔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언론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여론을 통한 개인의 정치참여는 정치권력의 행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때로는 이미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하게 한다. 여론을 반영한 정치의 결과는 대개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 정부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 **정치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라]

언론은 개인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의견의 사회적 교류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언론은 의견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정치참여자에게 전달하여 국가 권력이나 기업, 각종 이익 집단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제시하는 언론의 기능이 디지털 매체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SNS와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접하거나, 이를 통해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항상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매체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들어맞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과장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기사는 특정 방향성을 띠 가능성도 높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 보자.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기사는 친환경 정책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논조를 보인다. 두 번째 기사는 정반대로 현재의 원자력 발전 방식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인다. 어떤 기사를 읽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현실을 달리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른 의견을 지니게 된다.

‘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 추진 시 가구당 전기 요금 상승’

탈원전,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전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6조 6,000억 원의 추가 발전 비용이 발생(2030년 기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 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파이낸셜 뉴스, 2017.8.22.)

‘사회적 갈등·사고 비용 고려 시 발전 단가 최고 7배 켜춤’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논리는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러한 논리와 명분은 힘을 잃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및 원전 폐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고 위험과 사회적 갈등 등을 포함한 외부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경향비즈, 2017.8.21.)

한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와 정보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과부하와 저품질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 **정보의 비판적 수용**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와 논리성 그리고 균형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예시 답안

디지털 매체에서 가짜뉴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이전 전통 매체와 구별되는 생산 환경 때문이다. 콘텐츠 생산과 유통량이 늘면서 가짜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낮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정치의 목적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보고 형성된 개인의 의견은 그 정보가 가짜라는 점이 알려지면 사그라들게 된다. 여론의 근간이 되는 개인 의견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언론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언론사별로 편향성을 띤 기사를 제공한다. 이런 기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못 판단하게 한다. 시민들은 이렇게 잘못 판단한 여론을 반영하여 펼친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잘못된 사실과 의견 정보에 근거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면 사회 성원 간의 갈등 해소라는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성격에 맞춰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사실 정보라면 진짜인지를 판단해서 가짜일 경우 배제해야 한다. 반면에 의견 정보라면 주관적이고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거가 논리적인지 그리고 편향성을 띠는 이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756자)

■ 채점 기준

- ①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늘어난 두 가지 이유를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콘텐츠 생산자의 능력과 노력 부족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콘텐츠의 절대 생산량과 유통량이 증가함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생산자와 콘텐츠 양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매체는 이전 매체와는 구별된다는 식으로 매체의 변화에 관해 서술하면 부분 점수로 최대 **5점만**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디지털 매체, 콘텐츠, 생산자, 생산량, 능력(역량), (사실 확인) 노력
- ② (가)와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치 목적 달성에 여론 반영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를 아래의 두 핵심 개념을 포함하여 적절히 적용하면 최대 **20점**
 - 정치의 목적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뉴스가 가짜이거나 허위라면 이를 토대로 형성된 개인 의견은 안정성이 낮아 쉽게 변화한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편향성을 띠기 때문에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정치권이 잘못 판단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면 시민들은 여론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여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단순히 여론을 정확하게 혹은 올바르게 반영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부분 점수로 최대 **10점만**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정치, 여론, 정책, 편향성
- ③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정보를 사실에 관한 것과 의견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면 최대 **5점**
 -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용할 때는 진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서술했을 경우 최대 **5점**
 - 의견에 관한 정보를 수용할 때는 의견의 본질이 편향적임을 알고 근거의 논리성과 편향의 이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정보, 사실, 의견, 수용
- ④ 문법과 글의 짜임새, 그리고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면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1

[문제 1] ㉠의 이유를 (나)와 (다)에서 찾아 설명하고, ㉡의 원인을 (라)를 활용하여 서술한 다음, ㉢을 (가)와 (마)를 연관지어 비판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뉴 미디어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인쇄 매체가 인터넷 신문, 웹진, 전자책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방송 매체는 인터넷과 연결된 맞춤형 누리 방송과 위성 방송 등으로 진화되었다. 또한 SNS(누리 소통망 서비스), 블로그 등의 사회적 매체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의 중심 매체가 되었다. 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허물어졌다. 즉 정보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적 소비자의 시대, 또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것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 플랫폼이며,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메커니즘이다.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와 의견, 콘텐츠 등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개인은 송신자이자 수신자가 되며, 1인 미디어는 매체 채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우리는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고 진실을 오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람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에서도 나타난다.

하버마스는 수많은 의견이 갈등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대화와 타협, 담론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하버마스는 담론 상황에서 이상적 대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옳고 진실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실제 담론 상황이 이러한 이상적 대화 상황에 부합할 때,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갈등하는 의견 간의 합의나 공정한 판단은 어떠한 억압이나 왜곡도 없는 이상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나]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 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 사이트, SNS 등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정보 통신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교황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력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소식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2016년 미국 대선을 흔든 가짜 뉴스의 지리적 진원지는 황당하게도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벨레스라는 소도시였다. 심지어 범인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극우 성향의 영터리 뉴스 사이트나 SNS의 글을 긁어 모아 적절히 짜깁기하고 윤색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벨레스의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의 뉴스를 생산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교황이 누구를 지지하기로 했다거나, 어떤 후보가 테러 단체에 무기를 몰래 판매했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에 따라 뉴스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교황이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왜 가짜 뉴스가 돈이 되는 것일까?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광고주들이 가짜 뉴스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지는 않는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 업체는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설령 그 내용이 비윤리적이거나 진실이 아니어도 개의치 않는다. 과정이야 어쨌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짜 뉴스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가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다 보니 ㉠ **잘못된 사실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쪽으로 쏠린 정치 사회 소식이 전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편견과 고정 관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다]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다.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웃집 여성이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의 마녀 모임에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다.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서는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마녀, 마녀 집회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차츰 정형화되어 갔다.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죄인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녀사냥은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되었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을 복종시키려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권력 당국의 입장에서는 ㉡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 해야 했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했으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했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마녀사냥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복종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라]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논문이 실렸다. 당시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보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 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 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몇몇은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연구자들은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뵈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마]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침묵을 강요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억압이 그저 사적으로 한정된 침해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예시 답안

(나)에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회수가 높은 뉴스일수록 고가의 광고가 배치되기 때문이다. 즉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되는데 가짜 뉴스는 눈에 띄는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조회가 많아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에서 근대에 일반 민중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권력 당국인 국가와 종교가 이들을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국가와 종교는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른바 마녀사냥을 통해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일반 민중들의 복종을 얻고자 한 것이다.

(라)에서 참가자들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외부 정보가 많아 뇌가 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워 선택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다. 진실보다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사로잡는 가짜 뉴스가 뉴스를 믿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거짓 정보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가)와 (마)는 누구도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하버마스는 평등한 대화 상황에서 모두가 옳고 진실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화 상황에 부합하는 담론을 통해 공정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마)는 어떤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의견이 옳든 그르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793자)

■ 채점 기준

- ① ㉠ 정보를 왜곡하고 진실을 오도하는 이유를 (나)의 가짜 뉴스와 (다)의 마녀사냥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최대 **20점**
 - (나)에서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것은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가짜 뉴스가 조회가 많아 수익이 높기 때문임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다)에서 권력 주체가 마녀사냥을 통해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일반 민중들의 복종을 얻기 위한 것임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가짜 뉴스, 돈, 마녀사냥, 권력, 국가와 종교 및 관련 단어
- ② ㉡ 잘못된 사실이 진실로 인식되는 것의 원인을 (라)에서 뇌의 선택적 처리 실험의 내용을 활용하여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10점**
 - (라)의 고릴라 지각 실험 결과와 뇌의 처리를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뇌의 처리 기제와 가짜 뉴스의 인식을 연관지어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가짜 뉴스, 고릴라, 뇌의 선택과 집중, 정보 처리 및 관련 단어
- ③ ㉢에 대해 (가)의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과 (마) 밀의 자유론의 중심 사상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비판했을 경우 최대 **10점**
 - (가)에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과 담론의 조건을 활용하여 ㉢을 적절히 비판하면 최대 **5점**
 - (마)에서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을 주장하는 밀의 사상을 활용하여 ㉢을 적절히 비판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담론, 이상적인 합의, 진실,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및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2교시 · 문제 2

[문제 2] ㉠의 발전 과정을 (나)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을 (다)의 두 관점으로 설명한 다음, ㉢에 부합하는 ㉣을 (마)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챗봇’은 ‘채팅’과 ‘로봇’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챗봇은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 구조를 따른다. 즉 사용자가 대화방에 특정한 메시지를 입력하면, 챗봇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규칙에 따라 메인 서버에 자동 응답을 요청하고,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응답을 사용자에게 보낸다.

처음 챗봇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답을 단어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챗봇이 발전하고 있다. 챗봇에 긴 문장을 입력해도 그 의미를 해석하여 답변 역시 문장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 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친구가 되어 주는 기능을 탑재한 로봇들도 나타났다. 즉 안부나 위로의 말, 재미를 주는 말을 건네는 등 친교적 대화도 수행함으로써 ㉠ 기계와의 소통이 인간과의 대화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인공 지능이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이며, 인공 지능 연구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계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 주느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자들은 인간 두뇌를 모방하여,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 적소에 활용하는 기능을 최초로 구현한 ‘퍼셉트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입력 단계에서는 퍼셉트론의 각 단위가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인다. 정보가 입력되면 인지된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 오도록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적절히 변형하고 가공한다. 다음 단계는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그다음은 창조의 단계이다. 즉, 처리·분석·판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 출력하는 것이 퍼셉트론의 마지막 단계이다.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퍼셉트론은 ‘기계 학습’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퍼셉트론이 기술 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와 달리 초창기 퍼셉트론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퍼셉트론은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퍼셉트론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층을 늘려나가는 ‘다층 퍼셉트론’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에 적용된 컴퓨터의 데이터 분류방식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뉜다. 지도 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에 정보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양이 사진을 구분한다. 비지도 학습은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게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비슷한 군집을 찾아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는 배움의 과정 없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군.”이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기계 학습은 2006년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에 의해 전기를 맞이하였다. 힌턴은 다층 퍼셉트론에 사전 훈련, 즉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기계 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것을 ‘심층 학습’이라고 하였다. 힌턴은 기존 퍼셉트론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비지

도 학습을 통해 ‘사전 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힌턴은 필기체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이 심층 학습을 적용해 다른 기계 학습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심층 학습은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 과정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퍼셉트론 최적화를 수행한다. 데이터 가공과 평가부터 학습까지 연산 규칙에 포함된 것이 심층 학습의 특징이다. 심층 학습에 기반한 다층 퍼셉트론으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층 학습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얼굴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해, 심층 학습은 학습을 위한 더 나은 표현 방법과 효율적인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심층 학습은 오늘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인공 지능의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사전 훈련: 퍼셉트론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형태로 미리 학습을 반복하는 방법

[다]

인공 지능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은 극과 극을 달린다. 한쪽 끝에는 온갖 난제들을 풀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토피아가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영화 ‘터미네이터’가 상징하는 디스토피아가 있다.

금융 분석 프로그램 ‘켄쇼’는 금융 분석가가 40시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처리한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쯤에 컴퓨터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는 순간, 스스로 자신을 개조해 지적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커즈와일은 이 존재가 수명 연장과 재생산 에너지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공 지능의 발전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의 반대쪽에는 진지하게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다. 먼저 기계가 육체 노동자를 대체했듯이 인공 지능이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경제 포럼(WEF)은 인공 지능과 로봇 과학 등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공 지능의 성과를 누리면서도 이에 내재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라]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이 주는 풍요와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압도하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좋지만 두려운’ 이중적 감정에 빠져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제도로 기술 영향 평가가 있다. 기술 영향 평가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기술 선정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기술 영향 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시민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기술 영향 평가 결과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술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둘째, 새로운 과학 기술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후 발생한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2016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 있는 A사 본사에서 시험 주행 중이던 무인 자동차가 시내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는 ‘인공지능(AI)의 실수’가 벌어졌다. A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우리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무인 자동차는 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길을 양보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버스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의 경우 무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사후적 방식은 기술 개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도 지우는 효과를 갖는다.

■ 예시 답안

인간 두뇌를 모방한 퍼셉트론은 초창기에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는 등 기계 학습에 한계를 보여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러한 퍼셉트론을 사용하는 초창기 챗봇도 사전에 학습한 단어에 맞는 결과를 단어 형식으로 내놓는 데 그쳤고, ㉠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늘날 챗봇은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으로 퍼셉트론을 최적화하는 심층 학습을 사용하므로, 다량의 자연어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용자가 긴 문장을 입력해도 로봇이 그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종합해 결과를 내놓는 ㉠이 가능하게 되었다.

㉡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유토피아 관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 각 분야에 난제를 풀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으로 본다. 즉, 컴퓨터의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디스토피아 관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발전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은 집을 수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마)의 기술 영향 평가를 ㉢에 부합하는 ㉢으로 볼 수 있다.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시민,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인공지능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기술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과 제도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다.(770자)

■ 채점 기준

- ① 심층 학습 기반의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한 과정을 (나)에서 설명하는 인공 지능 기술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챗봇의 기술 발전을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20점**
 - 퍼셉트론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초창기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나)에서 찾아 기계 학습과 정보 손실 등의 개념으로 찾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7점**
 -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사전 훈련을 통해 퍼셉트론 최적화(또는 정보 손실 최소화)가 가능해졌으므로 다량의 자연어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가능해졌음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7점**
 - 초창기 퍼셉트론의 한계와 한계점이 보완된 심층 학습 기반 퍼셉트론을 형식적인 단어 형식으로 대답을 제공하던 초창기 챗봇(로봇)과 기계와의 소통이 인간과의 대화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추상화 모델 구현)에 각각 대입하여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6점**
 - ‘신경망 이론’, ‘인공 신경망’, ‘빅데이터’ 등 지문에 없는 인공 지능 관련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 경우, 지문에 없는 개념을 수험생이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최대 7점 감점
 - 모범 답안의 **첫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퍼셉트론, 정보의 손실, 비지도 학습, 심층 학습, 퍼셉트론의 최적화, 추상화 모델의 구축
- ② (다)에 나타난 유토피아 관점(긍정론)과 디스토피아 관점(부정론) 개념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대조적으로 적절히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의 유토피아 관점을 (다)의 예시를 들어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5점**
 - (다)의 디스토피아 관점을 (다)의 예시를 들어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5점**
 - 모범 답안의 **두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유토피아(긍정론), 디스토피아(부정론)
- ③ (마)에서 설명하는 기술 영향 평가가 ㉠에 부합하는 접근방식임을 찾고, 기술 영향 평가를 인공 지능 기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절히 설명했을 경우 최대 **15점**
 - (라)의 화자가 집을 수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예방하여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적절히 설명하면 최대 **5점**
 - (마)의 기술 영향 평가가 ㉠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임을 연결하여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인공 지능 기술에 기술 영향 평가를 적용하는 절차를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기술 영향 평가와 손해배상제도 둘 다를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은 괜찮으나, 손해배상제도를 ㉠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으로 서술하면 최대 5점 감점
 - 모범 답안의 **세 번째** 문단 참조
 - **Key Words:** 기술 영향 평가, 문제를 예방하여 사전에 대비, 시민·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